

“사랑의 감정, 공기와 호흡까지 담아냈죠”



영화 '조제'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남주혁(왼쪽)과 한지민.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제공

한지민과 남주혁이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 이어 영화 '조제'에서 다시 한번 애절한 연인을 연기한다. 두 배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조제’는 일본의 원작 소설과 영화로

한지민·남주혁 주연 영화 ‘조제’ 내달 10일 개봉 일본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각색

유명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김종관 감독이 각색해 선보이는 작품이다.

최근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보고회는 행사 초반 제작 영상을 본 남주혁이 먼저 눈물을 쏟자 한지민이 같이 울면서 잠시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가 ‘그 자체로 조제이자, 영석이었다’며 촬영 당시의 감정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영화는 불편한 다리 때문에 집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갇혀 살던 조제(한지민)와 조제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영석(남주혁)의 사랑 이야기다.

한지민은 “전작(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도 둘이 눈만 마주치면 서로 울어서 멀리 떨어져 있곤 했다”며 “(남주혁이) 먼저 촬영을 시작해 현장에 녹아 들어가는 상태에서 훨씬 편안하게 연기하고 있었고, 영석이 주는 느낌에 많이 의지했다”고 말했다.

남주혁도 “(한지민이) 조제 그 자체로 있어줬고, 눈만 봐도 눈으로 모든 걸 얘기하는 조제였다”며 “(함께 연기하며)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말했다.

1985년 발표된 다나베 세이코의 원작 단편 소설은 이후 이누노 잇신 감독의 실사 영화(2003)로 만들어져 국내에서 사랑받았고, 최근에는 다무라 고타로 감독이 연출한 애니메이션이 부산 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된 뒤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원작 소설과는 다른 결말과 감성을 선보여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종관 감독 역시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낙 좋은 원작의 무게가 있지만 시대의 변화와 상업 영화의 요구 속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보고 싶었다”며 “원작이 가진 깊은 인간애를 그대로 가지고 가되, 우리만의 조제를 만들어보려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한지민도 “우리가 그려낼 시나리오 속 색깔이 분명한 우리만의 조제를 표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캐릭터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 집에 휠체어를 가져다 놓고 익숙해지려고 했다”면서 “불편함이 가져오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었다. 감정만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두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감정의 담겨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단편적인 감정 하나로 표현되긴 어렵잖아요. 시작할 때의 떨림과 설렘, 그러면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망설임,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랑하면 가두고 싶고 끝날까 불안한 여러 감정을 대사로 표정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기보다는 거기에 느껴지는 공기와 호흡까지 담아내는 섬세한 작업이었어요.”

한지민은 “조제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책을 통해 세상을 접하다 보니 말투가 구어체보다 문어체를 쓰는 느낌도 있었다”며 “나 역시 조제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어려웠고, 낯설 수도 있지만 그래서 특별하고 매력적”이라고 소개했다. 다음 달 10일 개봉.

연출뉴스

거리두기 격상에 공연계 타격

2주간 1.5단계... ‘미스터트롯’ 서울공연도 무기한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하면서 대중음악 콘서트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달 7일부터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1.5단계에서는 모든 대중음악 콘서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작석 띄어앉기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이상 공연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두기 격상 기간 대규모 콘서트는 물론 중소형 공연 개최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는 것으로 보인다.

19~22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 DOME)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스터트롯’ 톱6의 2주차 서울 공연은 무기한 연기됐다.

공연기획사 쇼플레이는 이날 ‘미스터트롯’ 콘서트로 현재까지 총 11만 명 관객이 모였으나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서울 공연을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21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콘서트를 계획했던 보컬그룹 노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연 개최 여부와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관객 100인 제한은 대중음악 공연에만 적용된다. 순수예술 공연이나 뮤지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출뉴스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빌보드 차트 입성

데뷔 2년차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5위로 오르며 저력을 보였다.

최근 빌보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지난달 26일 발매한 미니 3집 ‘미니스드1 : 블루 아워’(minisode1 : Blue Hour)가 최신 빌보

드 200 차트에 25위로 데뷔했다.

‘미니스드1 : 블루 아워’는 이들이 ‘꿈의 장’ 앨범 3부작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연작으로 넘어가기 전 선보인 앨범으로, 타이틀곡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는 디스코 장르를 자신들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연출뉴스

사적이면서 공적인 가족 드라마

동명 웹툰 원작 ‘며느라기’ “모두에게 생각할 기회 되길”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일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말이 있다.

오랜 시간 다른 방식으로 살아 온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도 큰 노력이 필요하지만, 서로의 가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보다 더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카카오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오리지널 드라마 ‘며느라기’가 가족 드라마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며느라기’는 한 여성이 결혼하면서 부부생활 안에서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를 속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그린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

‘며느라기’에서 주인공 민사린 역을 맡은 배우 박하선(33)은 최근 제작발표회에서 “원작이 워낙 재밌어서 믿고 작품을 선택했다”며 “좋아하는 작품이 드라마로 재현되는 데 참여하고 싶어 도전했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 ‘며느라기’ 출연진. /카카오TV 제공

그는 이번 작품에서 원작 캐릭터와 가까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머리 스타일을 네 번이나 바꾸기도 했다.

사린의 남편이자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성 무궁역 역을 맡은 권윤은 “작품을 선택할 때 누군가에게 미움을 사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없었다”며 “‘며느라기’는 가족이 된다는 것의 무게를 담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기혼자가 아니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

‘며느라기’에는 박하선과 권윤 외에도 문희경, 백은혜, 최윤라 등이 출연한다.

시어머니 박기동 역을 맡은 문희경은 “그동안 카리스마 있는 악역을 많이 했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보통의 삶을 가깝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세상에 순응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평범한 어머니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며느라기’를 연출한 이광영 PD는 “이 작품은 며느리, 남편, 시어머니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며 “옳다 그르다는 것보다 많은 분에게 생각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드라마는 21일 오전 10시 카카오TV에서 첫 공개된다. /연출뉴스

성범죄 영화인 잇단 작품 개봉 논란

플란스키 영화 온라인 공개 복귀한 배우·감독 비판도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배우의 영화들이 잇따라 공개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으로 미국 영화 예술과학아카데미에서 영구 제명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신작 ‘장교와 스파이’가 국내에서 공개된다.

영화 수입·배급사인 찬란은 오는 25일 IPTV 등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 ‘장교와 스파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폴란스키 출신 프랑스인인 폴란스키는 1977년 미국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감형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40년 가까이 전세계로

도피 중이다. 배급사는 “내부적으로도 논란은 있었지만, 관객이 작품을 직접 보고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영화계에서는 2018년 연출가 이윤택과 함께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오달수가 영화 ‘이웃사촌’ 시사회를 통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논란이 일었다.

18일 개봉한 ‘요가학원:죽음의 쿤달리니’를 연출한 전재홍 감독은 절필방탈의실에서 남성의 나체를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1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 최철호 역시 2010년 여성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강력히 부인했다가 CCTV가 공개되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연출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1월 19일 (음력 10월 5일)

 <p>48년생 아무도 믿을 수 없다. 60년생 믿을 것은 핏줄뿐이다. 72년생 부위가 좋아지고 능률도 오른다. 84년생 투자는 삼가고 사태를 관망하라.</p>	 <p>49년생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면 안 된다. 61년생 남도 보고 뺑도 뺀다. 73년생 지나친 자식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된다. 85년생 이별수를 조심하라.</p>	 <p>50년생 시적이 반이다. 62년생 가꿈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 74년생 승리를 따르려면 백사대길이다. 8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하다.</p>	 <p>51년생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63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75년생 골짜기가 있어도 골은 들어간다. 87년생 새 숲은 새 부대에 담는다.</p>
 <p>52년생 춤추고 노래하는 즐거운 날이다. 64년생 법대로만 살 수는 없다. 76년생 후회할 일은 아예 시작을 말라. 88년생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다.</p>	 <p>41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53년생 역발상이 필요하다. 65년생 승진 운이 있으니 기대해볼라. 77년생 오늘은 피곤하고 힘든 날이다.</p>	 <p>42년생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다. 54년생 가는 날이 장날이다. 66년생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책이 없다. 78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p>	 <p>43년생 자만은 자기 자신을 망친다. 55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67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형국이다. 79년생 뽀는 눈 위에 나는 눈 있다.</p>
 <p>44년생 예상 못한 공돈이 생긴다. 56년생 절대 잘 난 척하지 말라. 68년생 운세가 불길하니 다투지 말라. 80년생 이성의 위험한 유혹을 조심하라.</p>	 <p>45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57년생 자신감이 반이다. 69년생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 81년생 과거는 잊고 새 출발하라.</p>	 <p>46년생 웃으면 복이 찾아온다. 58년생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70년생 집안에 경사가 연이어 생긴다. 82년생 운이 열리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p>	 <p>47년생 하늘이 돕고 있으니 걱정을 말라. 59년생 길고짧은 것은 대박야한다. 71년생 사소한 일이 목숨을 걸지 말라. 83년생 싱긋은 인연을 만나다.</p>